

1994년도 세계 낙농박람회 참관기(상)

설 동 섭

한국종축개량협회장

1. 행사일정 소개

미국 위스컨신 주 메디슨(Madison of Wisconsin State)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낙농박람회(World Dairy Expo)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메디슨의 국제박람회장에서 지난해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박람회 행사일정을 보면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모든 주최행사와 품평회 및 경매행사는 실내쇼장과 경매장에서 진행되었으나 낙농관련 각 업체와 단체들의 상업선전은 별도로 마련된 큰 건물 2개와 실내쇼장이 복도에 차려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대형농기계들은 야외에 간이지붕만을 씌워놓고 진열해서 시운전을 해 보이면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돋우는 동시에 판매계약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심사경진회, 특별교육세미나, 예술 및 솜씨자랑, 놀이, 연극, 코메디, 음악, 방송앵커의 특별방송등의 부대행사로 분위기를 자극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일정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선택해서 시간에 맞추어 공연장소를 찾아 다니느라 이리뛰

고 저리뛰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행사장은 30만평이 넘어 보이는 터에 젖소계류우사와 착유실을 포함해서 14~16개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규모면에서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고 이 행사를 협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추진위원회가 행사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형식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 행사규모와 배경

지난해 10월 4일 저녁 6시에 경매행사장에서 개최된 인정상(認定賞) 수상자점전 및 연회는 사실상 박람회의 공식적인 전야제행사로서 다른 연회에 비하여 규모도 크거니와 초청자의 범위도 낙농업계는 물론 관련업계 및 단체까지 대표들이 모여 성공적인 박람회 진행을 다짐하는 동시에 1994년도의 낙농분야별 유공자 4명에게 명예로운 인정상을 수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금년도의 낙농부인(Dairy Woman of the Year)으로 선정된 분은 그동안 각종 낙농행사에서 국가를 독창했으며 4-H활동을 통한 후계자양성, 농장생활이란 주제를 가지고 각종신문에 기고함과 동시에 시

를지어 발표하는 등 출판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건지-종젓소(Guernsey cattle)의 농장주로서 품평회에서 여러번 입상하는 소를 출품하는 것 등의 빛나는 공로를 인정받은 오하이오주의 보니-에이어스 여사(Bonnie Ayars)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금년도 낙농남자(Dairyman of the Year)상을 받은 오비-스나이더 씨(Obie Snider)는 개인 생활에서도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젓소종우생산자로서, 인간, 종교, 사회활동 면에서도 지도자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1951년부터 펜실버니아주 싱킹 부르크-크 농장(Singing Brook Farm)을 시작한 이래 480정보의 땅에 400두의 홀스타인 등록우를 가진 1급의 종우생산농장으로 성장시켰고 수많은 입상축을 쇼에 출품하여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전미주 홀스타인 보증종모우 등급 30위내 2두, 400위내에 6두를 내고 있으며 매년 종모우를 국내 40두, 캐나다 및 해외에 20두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1992년도 1월 종모우종합순위에서 이 농장이 생산한 종모우 Singing Brook N-B Mascot-ET가 1위를 한 바 있다. 전국 및 주 젓소관계협회 이사이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젓소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농업기금관계조직 및 대학발전위원회 회장등을 역임하고 있다.

금년도 산업인상(Industry Person of the Year)은 위스콘신주립대학의 영양학자인 테리 호워드(W. Terry Howard)씨가 받았는데 사료분야에 대한 최소비용균형사료계산방식(Least-cost ration balancing software programs)을 개발해낸 개척자이고 낙농가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기술지도사업을 주관했으며 그외도 여러가지 낙농개발사업에 지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헌신하는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금년도 국제인상(International Person of the Year)은 받은 존 모프트(John Moffit)씨는 국내외적으로 착유기시설, 품평회조직, 기술심의회위원회운영 및 국제농업정책에 대한 협의회주도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29세때 145정보의 농장을 가지고, 시작하여 오늘날 영국의 뉴캐슬근처에 620정보의 규모로 확대하고 거기에 350두의 홀스타인종 유우를 가족노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는 영국에서는 사설인공수정



낙농 박람회장 전경.

센타 프레미어 종우장(Premier Breeders)을 최초로 설립운영 하다가 1990년에 영국우유조합에 넘겨 줄때까지 영국의 젓소인공수정의 15%를 점유할 정도로 활발하였다. 수정난이식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영국젓소의 유전능력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영국종우사업가들에게 선발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4년도 후보종모우 후대검정에서 1, 2등의 소를 공급한 실적도 있고 1991년에는 영국데이타센타를 조직하여 개량기록처리체제를 일원화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농업전자회사인 헨데이 전자회사(Hunday Electronics)의 공동소유주 이면서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외에도 각종 공로상도 수없이 수상했으며 대영국홀스타인협회 회장직을 1972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봉사하면서 각종 젓소개량관계 위원회 위원장직도 맡아 보는 것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의 국제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인정상을 받는다는 것은 낙농분야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낙농인으로서의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수상식 만찬의식이 숙연한 분위기에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모든 사람들로 부터 존경의 박수갈채를 받는 가운데 진실로 고마워하는 수상자들의 인사와 함께 축하파티가 계속되었다.

지난해 10월 5일 10시 30분에 박람회 공식개회식이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 추진위원장인 그레그 블라스카(Greg Blaska) 씨가 행한 간단명료한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본인은 추진위원회 이사, 직원 및 이 행사를 가능하게 했던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서 1994년도 세계낙농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년행사의 표어는 “새롭고 흥미 진진한 행사를 치루자”입니다. 종합전시장 시설, 새로운 젖소우사건물, 쇼장부속건물등의 건설과 주차장확장공사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흥분할 만한 일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낙농전시행사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나은 종합전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진일보하였다는 그 사실에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참가인이 확대되고 매우 교육적인 프로그

“새롭고 흥미 진진한 행사를 치르자”는 표어는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매우 흥분스러운 행사라는 것인데 세계 68개국에서 61,000명의 사람이 참가하고 많은 새로운 시설물들의 건설을 통하여 지구촌의 낙농산업이 다시 하나가 되듯이 모든 사람들이 매년 가을마다 매디슨에 달려와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경진대회에 참석하고 금년이 28년째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진대회는 소 자체뿐 아니라 젊은이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목장관리 세미나, 목장견학 및 600개가 넘는 회사가 출품하는 상업전시물의 광고등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 박람회가 매디슨지역에 갖어다 주는 경제적인 이익도 관광당국의 추정에 의하며 매년 570만불(45억 6천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인근 수시간 거리에 위치한 젖소농장들은 이 행사를 통하여 견학 온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종우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며, 이 행사에 상업출품을 한 회사의 경우 평균 145건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박람회에서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진 판매고가 127,000불(1억 160만원)에 달하였고 16개국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으며 해외교역에서 얻은 소득이 무려 251,000불(2억 80만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업전시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상사들도 참가 회사들이 계속 늘어서 전시부-즈가 부족하여 야외전시장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그래서 전시시설을 금년에도 대폭 증설할 이유이기도 하단다. 금년에 공사가 시작된 무역센터가 완성되는 내년 부터는 전화와 휴게소 및 전문상담실이 완비된 실내전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박람회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77,300평방미터(23,400평)나 되는 무역센터는 현재 2/3정도 완성되었고 건설비는 무려 3,000만불(24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건물에는 500개의 표준 크기의 상설 전시실이 마련된다고 하며 새 우사는 275두분(30X 88m)의 크기로 최신식 설계로 지었다고 한다. 매디슨 동남쪽 200정보의 부지에 거대한 복합식건물인 세계낙농센터가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95년 6월 1일까지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낙농센터(World Dairy Center)는

세계낙농센터(World Dairy Center)는 국제 낙농산업조직망을 형성할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까지 수용할 계획인데 미국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기업까지 미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하였다. 600개 이상의 낙농관계 회사들이 참여한 상품전시장에서는 고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우수한 점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특히 협회에 서도 자기들이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크다고 생각되었다.

램과 상업전시물의 기록적인 숫적 증가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젖소경진 행사는 세계낙농박람회로 하여금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활기차고 최고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금년의 행사를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욱 가치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인이 박람회의 모양을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의미를 흠뻑담은 인사말입니까.”

국제 낙농산업조직망을 형성할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까지 수용할 계획인데 미국내 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국제기업까지 미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하였다. 600개 이상의 낙농관계 회사들이 참여한 상품전시장에서는 고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우수한 점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특히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크다고 생각되었다.

3. 낙농업 관계상품 전시

상품전시는 쇼장 콘돔식건물내 로비, 별관전시장 및 야외전시장등으로 나누어 하고 있었는데 본관로비에는 사료, 약품, 관리용 소도구, 협회 및 대형기자재 판매사들의 홍보실과 상담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별관전시장에는 착유시설, 유도책과 보정틀, 소형농기구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야외전시장은 대형농기계와 특수차량, 특수시설물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전시장에는 낙농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상품은 총 망나해서 전시되어 있는데 회사제품은 물론이지만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해낸 것도 출품되어 있어서 낙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값싸고 편리한 기자재와 약품, 사료 소도구 및 종자들을 구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여기서 전시된 물건을 사면 일반 시중이나 주문구입 보다 15~2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개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사지 않더라도 두고 두고 생각한 다음 추후 구입을 상담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행사라는 평이 자자하다.

특히 쇼장로비에서 젖소종축에 대한 선전은 7~8개사가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촉원들의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한 설명을 듣고 비디오를 보면 그 회사의 냉동정액을 종자로 쓰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날 정도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쁘고 말 잘하는 여자를 세워놓고 고객의 관심을 끄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밀크 셰이크를 대접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광경도 목격할 수 있었다. 예방주사약이나 치료 및 영양제를 선전하는 코너는 요즘 새로히 개발된 것이 대부분으로 종전에는 단일제가 나왔으나 복합제로

유사한 몇가지 질병을 한방으로 예방 및 치료하는 효율적인 제제가 많았다. 소독약 계통도 낙농가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유방염과 부제병에 대한 약제들은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일체의 상품을 하나의 셋트로 팔고 있는가 하면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은 책자를 반드시 끼워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각종 젖소별 협회에서도 젖소등록, 능력검정, 계획교배, 보증종모우 선택방법, 민간종우목장 리스트 소개 및 여러가지 개량정보의 활용방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등 개인회사에 못지않게 선전하는 것을 보니 우리협회들도 배울바가 크다고 느꼈다.

참가자들의 일부로부터 받은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젖소쇼에서 얻는 것 보다 상품전시회에서 얻는 것이 더 많았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한다. 이 행사에서 상품전시회를 중요시하는 이유도 단지 부스를 빌어서 경비의 상당부분을 뒷받침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때문에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매년 상품전시코너는 늘어가고 세계낙농센터가 완성되면 상설코너를 부분적으로 개설할 것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기자재를 전시하는 코너에서는 노력절감형 착유시설을 비롯하여 보다 위생적으로 우유를 생산할 수 있고 원 텃치식 전자장치를 첨가한 기계들을 내놓고 종전것이나 타 회사제품에 비하여 얼마나 편리하고 비용절감형이며 튼튼한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심히 홍보하는 것을보니 이것이야 말로 피나는 경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술은 필요에 따라 발전한다는 말이 있지만 낙농은 이와같이 주변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현대화되고 첨단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결국 세계낙농산업의 첨단화는 북미와 화란을 중심으로 한 유럽낙농선진국들의 주변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리드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마련이라고

생각되었다. 농기계는 경운의 경우는 북미농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두가 대형이라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농기계작업의 기본개념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다. 참가자들의 일부로부터 받은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젓소쇼에서 얻는 것보다 상품전시회에서 얻는 것이 더 많았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한다. 이 행사에서 상품전시회를 중요시하는 이유도 단지 부스를 팔아서 경비의 상당부분을 뒷받침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때문에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매년 상품전시코너는 늘어가고 세계낙농센터가 완성되면 상설코너를 부분적으로 개설할 것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4. 세미나의 역할

이번 행사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각종 세미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행사는 여러 관련회사가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가족노력중심의 작업에 의한 농장확장계획, 고능력암소사양관리, 성분가격제등의 훌륭한 발표과제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심사원 1명 보조심사요원 2명에 의한 육성우 부문 개체심사후 구별별 비교심사 과정.

'94. 10월 6일 목요일 "축군의 크기를 암소 100두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12:30)

위스콘신, 미시간, 동부미국 및 서부미국을 대표하는 생산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확장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것이었는데 내용은 주로 당초의 목표, 경영관리계획, 문제점 및 그들 계획의 내면적인 평가등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었다. 이 발표과제는 "축군을 100두 이상을 가져가기 위한 확장계획 설계도"라는 제목하에서 진행되었는데 푸리나사료 회사가 후원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94. 10월 6일 목요일 "노동과 휴식의 조화"(13:00)

목장을 건전하고 이익을 증가 시키는데 요구되는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가족생활의 오늘날 질을 균형있게 성공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농장부부와 관리자들이 나와서 토의하는 것인데 매우 흥미로웠다. 과제명은 "90년대의 낙농-농장관리, 가족노동 및 농의 소득"이었는데 후원은 미국 크랄트사(Kraft USA)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94. 10월 7일 금요일 "고능력우"(11:00)

2명의 과학자와 1명의 수의사가 나와서 "고능력암소의 영양, 부드러운 관리 및 번식"이라는 과제하에서 토의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 세미나는 론-포울런스가 축영양회사(Rhone-Poulence Animal Nutrition)가 후원하고 있었다. 토의자로서는 번식관리를 발표한 아리조나대학의 로이 액스(Roy Ax) 교수, 암소의 부드러운 관리를 발표한 위스콘신 대학의 켈노들런드 박사(Dr. Ken Nordlund)와 고능력우의 사양을 토의한 뉴 햄프셔 대학의 척 슈와브(Chuck Schwab)씨등이 참가하였다.

'94. 10월 8일 토요일 "성분가격제"(11:00)

토의자들은 성분가격제에 의한 이익극대화 전략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여기에는 연방법 30조에 대한 이해라는 과제를 발표한 미국 저지중협회의 칼빈 코빙톤(Calvin Covington)씨, 우유가공자로서의 입문이란 과제를 발표한 스위스 발레이 농장(Swiss Valley Farm)의 칼-쯔어보그(Karl Zurborg)씨 및 유전적인 목표설정이라는 과제를 발표한 섀렉트 사이어(Select Sire)의 로저 호이트(Roger Hoyt)씨등이

토의에 참가했고 이 행사는 “성분가격제도에 의한 효과적 경영계획개발”이라는 과제하에서 진행되었으며 미국 저-지중협회와 부라운 스위스협회의 공동 후원을 받았다.

이들 세미나들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비디오를 제작하여 하나에 5불(4,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5. 젖소경진대회와 경매행사

1) 유용쇼-트 혼종(Milking Shorthorn)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젖소경진대회로서는 가장 먼저 중앙쇼장에서 전국 유용쇼트혼종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경산우와 경산우로 구분하여 각 연령별로 총 164두가 출품되었는데 금년도 심사위원은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지역의 움스테드군 농촌지도소장으로 있는 데이빗드 조음(David Kjome)씨가 담당하였다. 육용쇼트 혼종과는 완전히 체형이 다르게 유용형으로 개량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우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젖소전용품종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1783년에 처음으로 미국 버지니아주로 도입된 이래 당초에는 유육역용으로 개척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그 후 1912년부터 젖소전용으로 개량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젖소품종으로 공식인정을 받았고 지난 15년여동안 보다 유용형 및 예각형으로 집중개량된 덕택으로 1993년에는 등록 검정된 1661두의 평균능력은 유량이 5,973kg, 유지율 3.59%, 유단백을 3.33%였다고 한다. 협회는 413명의 적은 규모지만 주로 위스콘신, 미네소타 및 일리노이주에 있으며 개량목표는 현재의 성분함량을 유지하면서 연간 유량 225kg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2) 건지 종(Guernsey)

유용쇼트 혼종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바로 옆에서 전국전지-종경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금년도 심사위원은 세렉트 싸이어(인공수정사업회사)의 직원 이면서 홀스타인암소 250두 규모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로렌 엘사스(Loren Elsass)씨가 맡아 하였다. 미국 6대 젖소품종중 황금색 우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품종은 고유지방, 고단백 및 고농도 베타 카로틴함량의 유일한 고품질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관광목장에서 사육하는 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품종의 능력은 1992년 유량 6,600kg, 유지율 4.5%, 유단백을 3.5%로 중형종으로는 상당히 높으며 양질의 우유제품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원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에이사종(Ayrshire)

'94년 10월 6일 오전 8시부터 종합쇼장에서 전국에 아사종 경진대회가 개최되어 총 185두가 출품되었으며 금년에는 경매인이며 에이사과 부라운 스위스종의 젖소를 가지고 일평생 일했고 한때는 에이사품종협회의 체형평가담당으로도 일을 했던 오하이오주 홀란스버그 출신의 가리 윌트(Garry Wilt)씨가 심사를 맡아 주었다. 이 품종은 스코트란드가 원산으로 젖소중 매우 강하고 조악한 환경에서 잘 견디는 선조들의 특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소로서 방목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낙농업계에서는 이 품종이 사료효율이 극히 높다는 점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 이 적백색의 소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822년에 코네티컷주주의 이민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개척당시의 영국이민자들은 바위가 많고 거치른 초지에 적응되고 추위에 잘 견디는 소를 요구했는데 에이사품종만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젖소는 다른 주에도 퍼져 가장 등록두수가 많은 주는 뉴욕, 위스콘신, 펜실버니아, 오하이오, 아이오아 및 버몬트주들이다. 이 품종은 장거리 수송에도 강하고 유지율은 젖소중 중간 정도이지만 비교적 고단백 함량의 우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급에 속하는 고능력우는 한 비유기에 9,000kg이 넘는 것이 보통이지만 평균으로는 유량이 6,900kg, 유지방 3.9% 및 유단백 4.75%의 고고형분우유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계속 줄어서 오늘날 700축군에 30,000여두정도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에이사종협회는 육종개량, 생산비절감대책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인공수정사업을 시작하면서 개량이 급속적으로 진전되면서 최고기록 유량 17,262kg, 유지방과 유단백이 각각 3.5%인 암소도 출현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